

『피네간의 경야』에 나타난 주체의 양상: 1권 6장의 “뷰어리스와 카시우스” 에피소드의 경우*

전 은 경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알아 가는가. 문학에서 자아성찰, 자아탐구의 문제는 중심적 과제로서 여러 문학 형태를 취하며 꾸준히 탐구되어 왔다. 『피네간의 경야』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아탐구’에 대한 작품으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꿈을 꾸는 자의 마음을 그린 이 작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꿈꾸는 자의 마음을 드러내 보인다. 그의 꿈에는 꿈을 꾸는 자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와 지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다섯 명으로 이뤄진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꿈꾸는 자의 마음이 투영된 그의 분신 격으로 다원적인 인격체(multiple personality)를 형성해주는 존재로 작용한다. 이처럼 『피네간의 경야』는 온 세계와 모든 역사를 하나의 마음 안에 내포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작품에서 논의된 자아탐구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연구는 2005년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서구 철학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20 세기에 들어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라캉(Lacan), 데리다(Derrida), 푸코(Foucault), 들뢰즈(Deleuze), 료타르(Lyotard)를 비롯한 현대철학자들은 전통적 방식과는 또 다른 견해를 펼쳐 보였다. 특히 후기구조주의에서 자아(自我)는 ‘주체’(subject)라는 용어로 대치되며 르네상스 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역사와 사회문화로부터 자유롭고 지적인 존재라는 인식과는 맥을 달리 한다. 데카르트의 이성적인 ‘나’는 자신을 확실하게 의식하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일정하게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존재로서 이와 상반되는 다른 심리적인 영역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거쳐 후기구조주의에 이르면 인간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후기구조주의 철학가이며 정신분석가로서 “주체”의 문제에 몰두했던 라캉은 인간은 결코 안정된 존재가 아니며 안정된 자아(自我)의 이미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체는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남 앞에 자신을 제시해 보일 때 상대가 기대하는 나를 제시해 보이며, 그 어느 ‘재현’도 우리를 완전하게 포착해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곁해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를 남들이 기대하는 이미지에 맞추어 변모해 간다면 주체는 늘 긴장하게 될 것이고 주체성(subjectivity)은 남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조성될 것이다. 라캉이 주장한 것처럼 주체란 사회문화의 소산물로 상징적 질서(symbolic order)의 이행자라면 주체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제시된 믿음들을 재생산해내는 존재가 될 뿐이다.

라캉이 주체성(subjectivity)을 분열(“disjunction”)로 정의했듯이 해체주의에서는 주체를 일관적이기 보다는 분열적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라캉은 『에크리』(Écrits)에서 주체를 “inter-said의 장(場),” 곧 “고전적인 주체가 지닌 명료함이 갈라지는 바로 그 장소(場所)”로 보았다 (Brivic 58 재인용). 그렇다면 주체는 동질적인 것보다는 상이한 성질의 요인들이 공존하는 본체로서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지닌 존재가 될 것이다.

“주체”에 대한 이와 같은 해체주의적인 이해는 『피네간의 경야』의 주인공의 다원적인 인격과 기존의 어느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제시

된 등장인물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한 사람의 정신적인 충동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원형적인 역할들은 그의 심리적 구조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명의 가족 구성원들은 따라서 범우주적인 마음속에서 교차하며 상호 작용을 하는 심리적 요인들의 구현체로 볼 수 있다. 『피네간의 경야』의 인물들은 일시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가 하면 서로의 역할이 교환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인물들로 분열되어 있던 존재들이 융합되어 더 큰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어 나가기에 주인공인 HCE는 “a multiplicity of personalities”(FW 107.24)가 된다. 그의 존재는 자신의 아이들의 인격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는 이들을 창조하는 원천인 썸이다. HCE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추상성은 그의 존재가 분산(dispersal)을 주체의 원리로 삼고 있어 무수한 형태를 통해서 그의 주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질성과 변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피네간의 경야』의 인물들은 근본적인 본성을 유지하면서 달라지고, 또 달라졌다가 다시 본래의 핵심적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이들 정체성의 변화 과정은 응집과 확산을 되풀이하는 유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이 조이스로 하여금 인물들을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했을까? 『피네간의 경야』에서 인물들의 주체의 문제는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로 생각된다. 『피네간의 경야』가 워낙 방대한 작품인 만큼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1권 6장에 나오는 “뷰어리스와 카시우스” 에피소드를 한 사례로 삼아 여기에 제시된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 “응집과 확산”이 인물의 주요 제시 방식이라면 이 에피소드에서는 “응집과 확산”의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

『피네간의 경야』는 강물이 만을 지나 호우드(Howth) 언덕을 끼고 흐르는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산과 강물은 남녀 주인공이기도 하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이어위커(Earwicker)지만 워낙 다양한 인물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HCE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되고 여주인공인 그의 부인 역시 애나 리비아(Anna Livia)라는 고유명사보다는 ALP의 대문자로 표기된다. 이어

위커가 아담, 노아, 넬슨 장군과 같은 성서와 역사적 인물부터 동물, 곤충, 나무, 강둑과 같은 생물부터 무생물에 이르기 까지 무한히 변신하듯이 부인인 ALP도 이브, 고대 이집트의 풍요의 대모신(大母神)인 이시스(Isis), 이졸데, 또는 암탉, 강물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 남녀를 지칭하는 HCE 와 ALP의 대문자 표기는 작품 전체에 걸쳐 의미를 달리해 가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 나온다. 이로써 등장인물들이 원형적이면서도 동시에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남녀 주인공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변신을 하면서도 일정한 맥을 유지해 가는데 가령 여성으로서 사랑과 모성의 근원인 애나 리비아는 일관되게 물로 구현되며 여성의 삶의 주기는 물의 순환적 변천과정을 밟고 있다. 맨 처음에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위클로 산정(Wicklow Hills)에서 흘러 내려오는 조그만 계곡물이 되고, 처녀시절에는 경쾌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HCE가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 체펠리조드(Chapelizod) 를 힘차게 흐르다가 나이가 들어 노파가 되면 더블린 시를 관통하는 리피 강이 되어 시가지의 온갖 오물을 자신의 몸에 실고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다가 바다와 합류하면서 그녀는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바다로부터 생겨난 수증기는 구름이 되면서 그녀의 삶의 주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이어위커는 근본적으로 남성성을 구현한 인물로 아일랜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 간다. 더블린 시민인 그는 작품의 시작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침략자로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사는데 이때 그는 아일랜드에 침입해 들어온 모든 이민족들인 덴마크 사람, 노르웨이인, 노르만 사람, 영국인 등으로 구현된다. 그의 활동 무대도 달라져 그가 운영하는 리피강가의 술집부터 역사상 인류가 치러온 온갖 전쟁터로 바뀌어 간다.

이어위커가 겪는 전쟁은 역사상의 실전에 그치지 않고 이어위커 자신의 마음 속의 전쟁으로까지 확장된다. 이어위커의 내면적 심리상의 전쟁은 그와 ALP의 쌍둥이 아들인 쉘(Shem)과 손(Shaun)이라는 상반된 성격과 기질을 지닌 두 인물간의 갈등의 관계로 나타난다. HCE 와 ALP가 남성과 여성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듯이 두 쌍둥이 아들은 작품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남성성을 띤 갖가지 대치 양상을 보여준다. HCE의 심적 갈등이 쌍둥이 두 아들로 구현되어 나오는 것일까. 이따금씩 라이벌 관계에 있는 쌍둥이 형제는 격렬하게 싸우다가 모호하게 결합하여 아버지인 HCE를 연상시키는 인물로 합해지기도 한다.

두 아들은 복잡적이며 복잡한 성격을 지닌 아버지에게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풍자적으로 그려졌다. 다분히 조이스의 면모를 지닌 쉘에 대하여는 주로 그의 라이벌격인 손을 통하여 듣게 된다. 쉘은 내성적이고 금기된 것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위험한 명상가이다. 그가 쓴 책들은 점잖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며 선과 악의 경계를 해체시킬 만큼 위협적이다. 그는 사회의 통상적인 법으로는 제어되지 않는 인물이고 사회로부터 은신하려 하는 보헤미안적인 자이다. 더 나아가 그는 사회에서 추방된 자로 세인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속적인 번영을 이루지 못하는 인물이다. 비사회적인 쉘에 비하여 손은 사회의 지도자로서 분별력이 있고 입담 좋은 정치적 연설가이다. 손은 반역자들을 진압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모은 사람이다.

손은 언제나 쉘과 정반대의 타입으로서 짝을 이루는데 거의 언제나 채찍을 휘두르는 자는 손이며 채찍질을 당하는 자는 쉘이다. 쉘이 베스트셀러를 쓰기 위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등을 돌리고 있는 한편 손은 그처럼 위험하고 음란하며 금지된 깊은 곳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작품이 검열당하고 거부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쉘이라면 손은 작품의 검열자와 거부자이다. 손은 유용하지 않는 한 정신적이거나 미학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쉘이 사유하는 자라면 손은 행동파이다. 손이 우체부라는 직함아래 인류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상을 받는데 사실 이 메시지는 쉘에게서 나온 것이다. 쉘의 일은 삶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언어를 발견하여 말하는 것이며 손의 일은 그 언어를 실체화시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메시지는 곡해되고 따라서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HCE는 그의 분신과 같은 두 쌍둥이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의 통합적 존재로 보인다. 따라서 두 아들간의 갈등이 증폭될수록 HCE의 모습은 복잡적이 된다. HCE의 인격이 더 다원화되기 위해서는 쌍둥이 아들간의 대치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한다. 대결 구도는 두 아들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그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에서도 드러난다. 꿈의 서술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아들이 탄생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과정을 심리적인 차원으로 서술한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이 세계와 접촉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낳게 되고 이 새롭게 형성된 이미지는 예전의 이미지와 경합을 벌리게 된다. 아버지와 그의 쌍둥이 아들들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대결적인 것으로 분열적인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세 남성의 관계가 다분히 경쟁적이고 분열적인 성질을 지닌데 비하여 어머니이자 여성인 ALP는 이 분열을 통합하는 자이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녀의 사랑 앞에서 두 아들의 치열한 경합은 일시적이지만 무마되기도 한다. 1권 7장에서 손의 공격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궁지에 몰렸던 썸은 어머니인 애나 리비아가 나타나면서 그의 고통이 해소되는 듯하다.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장으로 알려진 작품의 1권 8장에서 두 아들은 강물로 비유된 어머니 ALP가 흐르는 강의 강둑을 이루는데 그녀는 마치 두 아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가는 어머니처럼 보인다.

썸과 손, 이 두 아들의 장이라 할 수 있는 2권 2장은 독특한 지면상의 구성을 보이는데 중심부에 자리한 글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로 보이는 HCE와 ALP의 글로 보이는 서술이 나오고 그 원편의 여백에는 썸의 글이, 오른 편 여백에는 손의 글이 똑같이 주석처럼 나와 있고 딸인 잇씨(Issy)의 글은 맨 아래에 각주처럼 자리 잡고 있다. 부모와 두 아들, 그리고 외동딸이 내는 네 종류의 서술들은 각기 교유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언제나 뿔내며 켄체하는 손 격인 케빈(Kevin)은 두 형제의 관계에 대하여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totum tute fluvii modo mundo fluere . . . quodlibet sese ipsum per aliudpiam agnoscere contrarium, omnem demun amnem ripis rivalibus amplecti.
(FW 287.25-28)

위의 글을 길버트 히게트(Gilbert Highet)의 영어 번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우주 전체가 강물처럼 안전하게 흐르는구나. 그 어느 것이든 반대의 것을 통해서 그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강 전체는 강의 양 옆에 있는 강둑으로 싸여있다. (Brivic 109 재인용)

이 글은 강으로 비유된 ALP와 두 아들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모두 꿈꾸는 자인 HCE의 주체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갈등하는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다음에서 분열과 응집의 과정을 『피네간의 경야』1권 6장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피네간의 경야』1권 6장은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 주요 주제 등을 일목요연한 목록처럼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장인데 이를 수수께끼의 형식(또는 교리문답식)을 취하여 제시하였다. 첫 두 문제는 부부인 HCE 와 ALP에 대한 것으로 이 두 사람의 본질, 또는 속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 외 다른 문제에서 아일랜드의 수도와 주요도시들, 주인공이 고용한 하인과 하녀, 12명의 사회구성원들, 딸과 쌍둥이 아들, 그리고 이 집의 모토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12개의 질문 중 11번째 문제에서 쌍둥이 아들인 썸과 손, 그리고 외동딸,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언제나 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손은 이 11번째 수수께끼에서 저명한 “공간” (“spatialist”) 전문가인 존스 교수로 위장하여 다분히 조이스의 면모를 띤 썸에 대하여 자문자답한다. “아일랜드 배반자이고, 가난하고 술주정꾼인데다 눈까지 아픈 망명자”가 그의 몸과 영혼을 구할 음식을 요청한다면 이를 들어 주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스스로 짧막하게 “No!” 라고 대답한다. 그는 요청자인 형제가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현학적인 난해한 이론을 들먹이며 설명하여도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 한다. 그중 하나는 “묵스와 그라립스”(Mookse and Gripes) 에피소드이며(전은경 참고) 두 번째는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Burrus and Caseous FW 161.12) 에피소드이다. 11번째 수수께끼는 손이 그의 라이벌인 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긴 독백체 서술로 되어 있으며 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다.

존스 교수는 시간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썸에게 대항하여 공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는 아인슈타인(Winestain), 베르그송(Bitchson), 공간 찬양자인 윈덤 루이스(Wyndham Lewis)와 인류학자인 레비 블(Levy-Bruhl), 물리학의 양자 이론 등 어려운 이론들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우화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한다. 여기서 조이스는 손을 통하여 윈덤 루이스를 풍자하고 있기도 하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시간과 서구인』(Time and Western Man)과 『신의 유인원』(The Apes of God)의 상당 부분을 조이스를 비판하는데 할애했었는데, 공간과 시간에 관하여 루이스는 자신을 공간

중심의 예술가로, 조이스는 시간중심의 예술가로 구분했었다. 그런데 조이스는 “묵스와 그라임스”에서 시간을 중시하는 자를 썸, 공간을 중시하는 자를 손으로 분한다(Hodgart 147). 윈덤 루이스는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에서도 계속하여 풍자되고 있다.

첫 에피소드인 “묵스와 그라임스”는 “여우와 포도”라는 우화형식을 취하며 손 격인 교수가 썸을 공격하는데 이 에피소드에서도 썸과 손은 경쟁자로서 여러 인물로 바뀌어가며 다양한 경합을 벌인다. 이 에피소드에서 썸과 손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만 어떠한 타결점도 없이 결국 나무와 돌로 변한 채 이야기가 끝이 난다. HCE의 딸은 이 에피소드에서 ‘작은 구름’이란 뜻의 누보레타(Nuvoletta)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녀는 두 쌍둥이 오빠가 싸움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려보려고 애쓰지만 이들은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날이 저물자 그녀는 이슬로, 그리고 후에는 빗물(또는 눈물)이 되어 흐르는 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다.

“묵스와 그라임스” 우화를 말한 후에도 존스 교수는 만족하지 못한 채 “시간 이론”(“cashdime”)의 문제에 몰두하며 이번에는 역사이며 동시에 식품에 관련된 우화인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 에피소드를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주장을 펴다. 이 에피소드에서 손과 썸은 브루투스(Brutus)와 카시우스(Cassius)의 로마 정치, 그리고 버터와 치즈라는 식품, 이어서 기하학의 형태로 변모하며 대치한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아버지 격인 시저(Caesar)를 살해하고 서로 싸움을 벌인다. 손은 그와 그의 형제가 똑같이 국왕시해를 자행 했지만 자신은 고상한 시해자인데 비하여 카시우스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묵스와 그라임스”에서 누보레타란 이름으로 등장했던 이들의 누이 마가린(Margareen, 또는 Margareena), 또는 마지(Marge)가 등장하여 두 사람의 경쟁자 사이에 안토니우스(Antonius)를 끌어들여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안토니우스가 이들과 합류하면서 안토니우스, 뷰어러스, 카시우스, 이 세 사람 이름의 첫 알파벳인 A, B, C는 이들의 관계를 양각(“isocelating biangle”)의 구도에서 삼각형(triangle)의 구도로 바뀌게끔 한다. A, B, C 가 이런 삼각형은 로마역사에서 삼두 정치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손의 공간과 썸의 시간이 합하여 HCE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삼두정치는 기원전 60년 폼페이우스(Pompey), 시저(Julius Caesar), 크라수스(Crassus)가, 그후 기원전 43년 안토니우스(Mark Antony), 옥타비아누스(Octavian), 레피두스(Lepidus)가 뒀다.

1권 6장의 두 에피소드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한 다르다. “묵스 와 그리입스” 에피소드에서는 세 사람은 아무런 타협점이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 채 끝이 나는데 비하여 “뷰어리스 와 카시우스”에서는 이 세 사람이 합한다. 전자에서는 두 쌍둥이 형제가 자신들의 싸움에만 몰두함으로써 누보레타에게 무관심하자 그녀는 죽음을 택하는데 비해서 후자에서는 두 형제는 마가린(또는 클레오파트라)이라는 여성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린다. 하지만 그녀는 이들을 버리고 안토니우스를 택한다. 즉 전자에서는 세 사람이 분열하는데 비하여 후자에서는 응집한다.

“뷰어리스 와 카시우스”도 “묵스와 그리입스”에서처럼 손 격인 존스 교수가 재차 썸 타입으로 보이는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먼저 자신은 친구를 사랑했고 찬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성적으로 말 하건데 친구인 나쿠스 노코비치("Gnaccus Gnoccovitch")(FW 159.28) 보다 자신이 천재적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는 방법론에 주력하는 자신에 비하여 영리하지만 부주의한 그 친구에게 동정을 느낀다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상대를 비판한다. 존스 교수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 친구가 사실은 자기와 쌍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퀘변론자의 철학("Cusanus philosophism")(FW 163.17)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비난하며 사회에서 밀려난 자는 집근이 거의 불가능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한다. 그 친구처럼 말썽 많은 망명자에게는 대서양에 떠있는 섬이나 혹은 세인트 헬레나 섬과 같은 외진 섬인 트리스텐 다 쿤하("Tristan da Cunha")(FW 159.32)로 가서 은둔자처럼 사는 것이 적격인데 그곳에 그 친구가 간다면 그는 그곳에서 106번째의 주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존스 교수는 이어서 이 지역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내용의 실체는 여전히 상대 친구에 대한 것이다. 그는 그 섬에 자라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에 HCE에 대한 언급을 하게되는데 그에 대하여 그 섬에서조차 여러 미친한 나무들과 섞이면서 씨를 퍼뜨리는 자라고 말한다.

. . . those selfsownseedlings which are a species of proof that the largest individual can occur at or in an olivetion such as East Conna Hillock where it mixes with foolth accacians and common sallies and is tender

(FW 160.10-13).

“Hillock”은 더블린 근교에 위치한 브레이(Bray) 근처에 있다. 이 친구는 아이디어와 세계관을 바꾸기 위하여 이 섬으로 갔는데(“He ought to go away for a change of ideas and he'd have a world of things to look back on”)(FW 160.1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종을 만들어내는 불미스러운 아열대성 나무들처럼, 또는 화산과도 같은 나무처럼 씨(“selfsownseedlings”)를 바람에 실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화산재”(“mannah ash”)(FW 160.5)를 휘날려서 온 세상은 물론 그를 차버린 섬에 사는 순진한 여성 거주자들에게도 뿌려댄다고 그를 비판한다. 그의 글에 대하여 존스 교수가 “most unenglish”(FW 160.22)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얼핏 유럽으로 건너가 『피네간의 경야』를 쓰고 있는 조이스를 상기시킨다. 교수는 그를 가리켜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뻔뻔스러운 도둑이라고 비난한다.

그 다음으로 존스 교수는 『피네간의 경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네 명의 노인(Four Old Annalists)에 대하여도 말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각각 “billfaust”(벨파스트), “Wilsh”(웨일즈), “philip deblinite”(더블린), “Wist”(서쪽, 즉 골웨이?)(FW 160.27-28)로 여기서는 인명이자 지명이다.

네 명의 연대기 편자들인 노인에 대하여 언급한 후 교수는 “목스 와 그라립스”에서도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주제로 옮겨 가는데 썸의 유형으로 보이는 친구를 가리켜 “시간이 돈”(“a mere cashdime”)(FW 161.4)이라고 칭한다. 이후 그는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III.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 에피소드는 라이벌 쌍둥이 형제와 여동생, 이 세 사람을 버터, 치즈, 마가린이라는 유제품과의 식품과 브루투스, 카시우스, 클레오파트라가 연루된 로마 역사를 한데 엮어 이 세 사람 간의 관계와 아울러 이들과 이들의 아버지인 HCE의 관계를 시사한다.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 에피소드에서 존스 교수는 썸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되 음식의 맥락에서 말을 하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수(손)는 버터로, 썸은 치즈로 비유된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로마 역사에서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 와 카시우스이기도 하다. 버터와 치즈는 서로 다른 제품이지만 원래 우유의 상태에서 서로 엉켜있었던 것처럼 썸과 손이

다르면서도 한 아버지에서 탄생되어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가분한 관계를 암시한다. 여기서 아버지인 HCE와 두 아들의 관계를 시저와 그를 정치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관계로도 비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뷰어러스와 카시우스를 비교하면서 교수는 뷰어러스는 훌륭하지만 카시우스는 그 반대로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Burrus, let us like to imagine, is a genuine prime, the real choice, full of natural greace, the mildest of milkstoffs yet unbeaten as a risicide and, of course, obsoletely unadulterous whereat Caseous is obversely the revise of him and in fact not an ideal choose by any meals, . . . (FW 161.15-19)

뷰어러스와 카시우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지만 교수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주장에 위배되는 단어들이 보인다. 그 예로서 “obsoletely”와 “revise”와 같은 어휘들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obsoletely”는 “절대적인”(absolute)의 의미와 “쓸모없는,” “폐기된”(obsolete)이라는 두 상반된 의미가 중첩되어 있으며, “revise”라는 어휘도 문맥상으로 볼 때 교수는 “reverse”(반대의)의 말이 잘못 튀어 나온듯하기도 하고 또는 “교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듯하지만, 이 단어에는 “복습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복사판”으로 읽을 수가 있겠다. “revise”라는 어휘는 “같으면서도 다른”의 뜻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semagen”(FW 162.28), (“same again”)의 말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 어휘는 썸과 손의 관계의 근본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nbeaten as a risicide”와 같은 어구에서는 로마 역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 역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수의 말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잘 이해시키려고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데 늙은 시저(“older sisars”)를 가리켜 “독재자, 당신에게는 국왕시해가 합당해!”(“Tyrants, regicide is too good for you!”) (FW 162.1) 라고 하며 그는 늙어서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는 사람(“become unbeurrrable from age”)(FW 162.1-2)라고 말한다. 늙은 시저가 노쇠하여 지쳐버리자 쌍둥이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리를 맞댄다. 시저와 브루투스, 카시우스의 관계는 HCE와 썸과 손, 곧 늙은 아버지와 그의 자리를 넘보는 두 아들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두 아들은 로마의 장군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처럼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에 있다.

교수는 계속하여 설명하기를 카시우스는 자신을 기사로 생각할지 모르나 아일랜드 사람의 눈에 그는 남의 결점을 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뷰어러스는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기서 뷰어러스를 둥근 머리("roundered head")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어휘는 "원만한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 17 세기에 아일랜드를 정복한 크롬웰을 떠올리게 한다. 이 어휘를 크롬웰을 지칭한 것으로 읽는다면 역설적으로 뷰어러스는 아일랜드를 침공한 사람으로 카시우스보다도 아일랜드에 더 위협을 가해온 자가 된다.

Caseous may bethink himself a thought of a caviller but Burrus has the reachly roundered head that goes best with thofthinking defensive fideism. He has the lac of wisdom under every dent in his lofter while the other fellow's onni vesity milky indeedmymy. (FW 162.21-2)

지혜롭고 온화한 사고를 하며 방어적인 충성심에 찬 브루투스에 비하면 카시우스는 젓먹이처럼 순전히 풋내기에 불과하다. 카시우스는 구멍이 한 두 군데 나있는데(구멍이 나 있는 치즈는 스위스 치즈로 조이스가 추리히에 망명했던 점을 상기시킨다), 멀리 있어도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데다 까다로우며 잔치하는 벌레와 같다. 그를 두고 여러분은 "Cheesug!"(Jesus!)라고 불평할 것이다.

. . . Caseous, the brotherscutch or puir tyron: a hole or two, the highstinks aforefelt and anygo priggig wurms. Cheesug! you complain. (FW 163.8-10)

우화를 이야기하며 줄곧 썬을 비판하던 교수는 그러나 반감을 참아내야만 한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는 좋고, 싫음, 망명자 또는 매복자, 거지와 이웃을 피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반감을 참아내도록 하자"("Thus we cannot escape our likes and mislikes, exiles or ambusheers, beggar and neighbour and . . . let us be tolerant of antipathes")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버티로 부티도 순수한 치즈는 만들어낼 수 없다("Nex quovis burro num fit mercasus?")(FW 163.12-15)라고 말함으로써 뷰어어스와 카시우스, 또는 손과 썬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 같다.

그는 이어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입장을 "묵스와 그라임스"에서도 논의되었

던 “시간”과 “공간”의 주제를 통해서 말하는데 공간에 대하여는 견고함(“the more stolidly immobile in space”)을, 시간에 대하여는 유동성(“the top primomobilisk”)(FW 163.20-22)을 강조한다. 그리고 브루노(Giordano Bruno)를 상기시키듯 “놀러너스 이론”(“Nolunus theory”)와 브루노의 대변자였던 테오픈(“Theophil”)(FW 163.24-25)에 대하여 언급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버터와 치즈에 대한 이야기를 뒤섞어 이야기 한다.

그는 잘 소화되어 아주 건강에 좋은 뷰로만(Burroman)박사의 음식이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노라고 하며 서로 양극을 이루는 두 제품은 상반되게 작용하므로 양립할 수 없고 이 둘을 중심축에 고정하는 일은 환상에 불과할 뿐(“... how both products of our social stomach . . . mutuearly polarised the incompatability of any delusional acting as ambivalent to the fixation of his pivotism”)(FW 163.34-164.3)이라고 역설한 후 이 두 남성으로 이뤄진 양극(“too males pooles”)을 조정할 중재역을 맡을 여성(“middle between males we feel we must waistfully woent a female”)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유를 짜는 여인인 M, 즉 마가린을 소개한다.

마가린은 “절대적인 영도”(“absolute zero”) 이거나 또는 “플라톤 철학, 곧 정신적 사랑을 재잘대는 시점”(“babbling pumpt of platinism”)(FW 164.6-11)의 온도 처럼 완전히 중립적 위치를 지키는 여성이다. 마가린의 등장은 『피네간의 경야』에서 여성에 관한 대목이 그렇듯이 매우 서정적인 서술로 묘사되어 있어 남성인 손의 서술과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We now romp through a period of pure lyricism of shamebred music . . .
evidenced by such words in distress as I cream for thee, Sweet Margareen, and
the more hopeful *O Margareena! O Margareena! Still in the bowl is left a
lump of gold!* (FW 164.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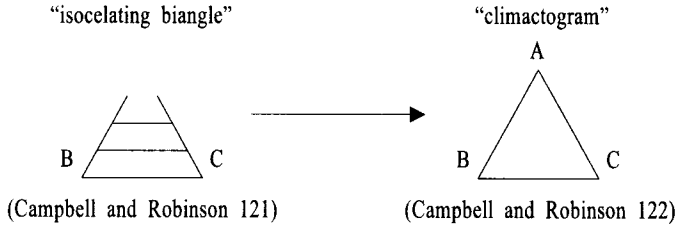
마가린이 나타나자 손은 갑자기 조이스-HCE가 되어 꿈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서정적인 기법으로 그려낸 시집인 『실내악』(*Chamber Music*)을 떠올리고 이 시집에 대하여 수치감을 느낀 듯 “shamebred music”(FW 164.15-16)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 시집에서 사용했을법한 다분히 감상적이며 낭만적인 서술체로 그녀의 등장을 알린다.

마가린은 그 원천은 버터나 치즈와 같이 우유로서 사실상 HCE의 아이들이자 분신이다. “묵스 와 그리입스”에서 그녀는 두 남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함으로써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존재이었고 따라서 이 세 아이들은 모두 분열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비하여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에서는 여성인 마가린은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합성제품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두 남자를 합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존스 교수는 “Silkebjorg tyronodynamon machine”(FW 163.30)이라는 기계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Silkebjorg”는 유제품 기계를 만드는 덴마크의 도시명이고 “tyron”은 치즈를 뜻하며 “dynamon”은 힘을 의미한다. 챔벨과 로빈슨은 이 기계는 우유에서 버터와 치즈를 분리시키는 기계이므로 정-반-합의 과정에서 우유라는 “합”으로부터 “정”과 “반”이 나오는 과정에 대한 알레고리로 보았다(Campbell and Robinson 120).

마가린은 마아지(Marge)란 칭호로도 불리는데 그녀는 뷰어러스(또는 버터)를 좋아했지만 또한 카시우스(치즈)도 좋아했다. 뷰어러스와 카시우스가 그녀의 마음을 사려고 다툼을 벌리고 있을 때 그녀는 클레오파트라처럼(“cleopatrician”)(FW 166.34) 되어서 안토니우스와도 얹히게 되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안토니우스가 끼어들자 이들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숫자는 2에서 3으로 확장되어 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마아지는 뷰어러스와 카시우스의 갈등 속에 안토니우스를 끌어들이함으로써 “이등변 삼각형”(“isocelating biangle”)(FW 165.13)을 이루게 한다.

. . . (Marge in her excelsis), also comprised the climactogram up which B and C may fondly be imagined ascending and are suggestive of gentlemen's spring modes, these modes carrying us back to the superimposed claylayers”
(FW 165.23-26)

도식으로 설명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챔벨과 로빈슨은 아래와 같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가린에 의하여 뷰어러스와 카시우스가 합하여 이룬 “climactogram”의 도형을 챔벨과 로빈슨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제시해 보였다. 아래의 도형은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표로서 “Antonius-Burrus-Caseous grouptriad”의 도식과 삼각형의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그 외에 또 하나의 기표는 “뷰어러스와 카시우스” 에피소드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2와 3”의 숫자이다. 가령 서술자가 뷰어러스(버터)와 카시우스(치즈)에 대하여 말하면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어 여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three, twinsom bibs”(FW 161.30)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대목은 음식에 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정치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가령 “risicide”(FW 161.17)는 라틴어로 “risus”(웃음)으로, 그리고 “regicide”(국왕 시해)로 읽을 수 있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광경을 “Our Old Party quite united round the Slatbowel at Commons”(FW 161.26-27)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Party”는 가족 또는 정당, 그리고 “Commons”는 식당 또는 국회의 하원으로 읽을 수 있다. 뷰어러스와 카시우스를 버터와 치즈 외에 브루투스과 카시우스로 읽어 로마 역사를 암시하려는 시도를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예를 “the Smythe-Smythes now keep TWO domestics and aspire to THREE male ones”(FW 166.16-17)의 어구에서 볼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여성 마아지의 옷차림과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지만 대문자로 쓰여진 “2와 3”의 숫자는 그녀의 통합적 역할을 암시한다고 보인다. 이 숫자가 뷰어러스, 카시우스, 안토니우스, 이 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나왔던 두 개의 기표와 더불어 이들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캠벨과 로빈슨은 뷰어러스와 카시우스를 정(thesis)과 반(antithesis)으로 비유하고 이 둘을 합(synthesis)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안토니우스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셋이 합쳐져 HCE의 복합적 성품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토니우스는 이 삼각형을 완성하는 자라면 그는 아버지인 HCE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Campbell and Robinson 122). 위의 인용문에서 “벽돌 쌓는자”(claylayers)의 어휘는 피네건, 혹은 HCE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캠벨과 로빈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스는 카멜레온같은 HCE처럼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종잡을 수 없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는 온갖 색조를 띤 훌륭한 치즈를 애호하면서도 동시에 시골 뜨기처럼 거친 판토마임 묘기를 부렸다. 안토니우스-뷰어러스-카시우스로 이루어진 삼인조 그룹은 예전에는 소위 “*talis on talis*”(FW 167.5)라고 불렸던 것과 동등한 “*qualis*”(FW 167.5)에 견줄 수 있겠다. “*talis on talis*”는 “그와 같이”(such, 또는 such like)를 뜻하고 “*qualis*”는 “그러한 종류의”(of such a sort)를 의미한다.

This Antonius-Burrus-Caseous grouptriad may be said to equate the *qualis* equivalent with the older socalled talis on talis one just as quantly as in the hyperchemical economantarychy the tantum ergons irruminate the quantum urge so that eggs is to whey as whay is to zeed like your golfchild's abe boob caddy. (FW 167.3-8)

리드미컬한 어휘로 구사된 이들에 대한 묘사는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앞서 나온 기하학 도식처럼 고도의 화학작용으로 융합되어 HCE라는 인물을 이룬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eggs”(달걀)와 “whey”(치즈를 가려 낸 후의 우유), 그리고 “caddy”(야비한 남자)는 모두 HCE와 관련된 어휘라는 점은 이러한 풀이를 뒷받침한다.

“묵스와 그라임스”에피소드에서는 두 쌍둥이 형제는 분열된 상태로 끝나는데 비하여 “뷰어러스와 카시우스”에피소드에서 이 라이벌 형제를 결합시키는 동인은 무엇일까. 뷰어러스와 카시우스의 결합은 마아지와 안토니우스의 등장에서 비롯되었다. 상반되는 성격의 쌍둥이 형제를 결합시켜서 HCE라는 복합체적인 인격체를 형성하도록 역할을 한 자는 여성인 마아지와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종잡을 수 없는”(“elusive”)(FW 167.1) 안토니우스인 것이다. 마아지와 안토니우스는 한 개인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이 대변하는 특정한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아지는 여성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포용성을 나타낸다면 안토니우스는 고정적이기 보다는 유동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유동성이 화학적 작용(“hyperchemical”)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 작용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합성시켜 복합체를 이루어 내도록 했다. 마아지와 안토니우스가 대변하는 포용성과 유동성은 다원성을 이끌어내며 HCE라는 복합적인 인격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뷰어러스와 카시우스”에피소드는 그 어느 바보에게라도 한 쪽은 초록색, 다

른 쪽은 푸른 색깔의 옷을 입힐지라도 나의 탐색하는 눈(“gropesarching eyes”)(FW 167.12-13)에서 그가 여전히 바보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말하며 끝난다. 이 결말은 다소 시니컬한 어조이긴 해도 앞서 언급한 내용의 맥락에서 보자면 HCE의 정체성, 곧 언제나 변화하면서도 동일한 인물인 그는 “seemsame”(FW 161.22)의 존재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이후 6 장은 서술자가 쌍둥이 형제는 “사랑으로 결속된 나의 분신이며 편견이 깃든 나의 증오”(“my doubled withd love and my singlebiassed hate”)(FW 168.7)라고 말함으로써 서로 애증으로 엮어진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한 후 마지막 질문인 12 번째 수수께끼로 끝이 난다.

12. Sacer esto?

Answer: *Semus sumus!* (FW 168.13-14)

12번째 질문은 “Are we the same?” 또는 “Shalt be accursed?”로 풀이할 수 있고 대답은 “We are same” 또는 “We are Shem”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McHugh 168; Campbell and Robinson 123).

IV.

『피네간의 경야』는 궁극적으로 인간 의식을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꿈을 꾸는 주인공 남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삶에서 벌어지는 알력과 갈등, 그리고 자신에게 친숙한 지리적 환경들이 그에게 전우주의 축소판(microcosm)이 되어 그로 하여금 삶을 감지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이 요인들은 그를 형성해가는 힘이 되고 또한 역으로 그의 내면 의식을 시공 속에 풀어 내보이는 반사체가 된다.

라캉의 지적대로 주체란 본래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상태를 욕망하는 근본적으로 분열적인 존재라면 인간은 서로 대립하는 양극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피네간의 경야』에서 웬과 손은 꿈을 꾸는 HCE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올라 발로된 그의 분신들이며 다른 인물들도 주인공

의 마음이 체현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분신들은 서로 대결하고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정체도 지속적으로 변모한다. “묵스와 그라임스”에서 두 라이벌인 웹과 손은 여우와 포도등 여러 형태로 변하며 서로 경합을 벌이지만 한편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바꿔 포도가 여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냥꾼인 여우가 사냥감이 되기도 한다. HCE를 이루는 삼각형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면 여성성의 원리인 아내 ALP로 표시되는 삼각형과 중첩되거나 접촉을 하는데 이 경우는 남성인 HCE의 마음에 있는 여성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질적인 요인들이 융합할 때 HCE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의 인격체는 복합적으로 되어 많은 인간유형을 포용한 인격체인 “a manyfeast munificent more mob than man”(FW 261.21)이 된다. HCE가 여러 유형의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무한하게 변모하는 현상은 주체의 본질과 작용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뷰어러스 와 카시우스”에피소드는 우유에서 유래한 버터와 치즈, 마가린, 그리고 아버지 역을 하는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Brutus)와 카시우스(Cassius)라는 새롭게 일어나는 힘에 의하여 밀려나고 이 둘의 결합체인 안토니우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HCE라는 주체의 갈등, 분열, 융합의 과정을 보여준다. 시공에 투영된 모든 것은 인간의 본질과 체험에 대한 국면들일뿐 일관된 인간의 주체는 아니므로 한 사람에게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합체하는가 하면 역으로 한 역사적 인물이 그가 지닌 다양한 본성과 다채로운 인생 스토리로 인하여 시공 속에서 무한히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HCE의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그의 마음이 투영된 형태들로 한 사람의 다면적인 마음이 창조해낸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확실하게 구분되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한 주체 안에 서로 부조화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뿐 명료한 자아나 독특하고 일관된 자아는 찾아 볼 수 없다. 양극을 이루는 반대편들이 이따금씩 결합하기도 하고 서로 역을 바꾸기도 하며 상반되는 힘들의 상호작용을 보게 된다. 이들의 끊임없는 작용으로 주체는 안정될 수 없으며 나가는 방향도 여러 갈래이다. 마음의 섬세한 움직임 때문에 『피네간의 경야』에는 일상적인 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거나 연속적인 사건이 나올 수가 없다. 대신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서로 교차되고 얹혀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주체의 구현인 HCE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며 유동적인 인물인 “Here Comes Everybody”이다. (송실대)

인용문헌

- 전은경. “『피네간의 경야』 1권 6장의 ‘묵스와 그라임스’ 에피소드 읽기.” 『제임스 조이스저널』. 10권 1호 (2005년 6월): 191-214.
- Brivic, Sheldon. *Joyce The Creator*. Madison: U of Wisconsin Press. 1985.
- Campbell, Joseph and Henry Morton Robinson.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Gordon, John. *Finnegans Wake: A Plot Summary*. New York: Syracuse UP. 1986.
- Joyce, James. *Finnegans Wak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4.(First Published in 1939 by Faber and Faber in London)
-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Baltimore: Johns Hopkins UP; London: Routledge. 1980.
- Rose, Danis and John O'Hanlon. *Understanding Finnegans Wak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2.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Finnegans Wak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9.

Abstract

On Presenting the Subject in the Episode of 'Burrus and Caseous' in *Finnegans Wake*, Book I, Chap. 6.

Eun-Kyung Chun

Finnegans Wake, as a form of dream, explores the mind or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unconscious of a man. The hundreds of fict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s in the work reflect the dreamer's impulses and the five archetypal characters of HCE's family members are also the projection of the interacting elements of his mind. Thus the characters in the *Finnegans Wake* often exchange their roles, blend their identities, or combined into a single figure. The work shows that man's mind is composed of many selves and it is impossible to have a consistent individual character when he has "multimind." All the figures of the work could be the protean mind of one dreamer and what happens in time and space are the projection of aspects and processes of his mind.

The poststructuralist idea of subjec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peculiar character of *Finnegans Wake* rather than the Cartesian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which has traditionally represented human being. Jacques Lacan explains a subject as the "location of a difference" and the one which is divided against itself and dissatisfied. The subject of poststructuralism is neither unified nor the unique individual who can control him/herself.

The Book I, Chapter 6 of *Finnegans Wake* presents the main character and the scene of the work as the form of riddles. The question 11 of the chapter presents the brother rivalry between Shem and Shaun, who are the twin sons as well as the embodiments of the dreamer's conflicting forces, through two episodes of "The Mookse and The Gripes" and "The Burrus and The Caseou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issue of the subject of poststructuralism works in the latter episode. The

episode of “The Burrus and The Caseous” explains the subject in terms of the food and Roman history: butter, and cheese, and margarine; Brutus, Caseous, and Antonius. In “The Burrus and The Caseous” the competing twin sons sometimes exchange their parts each other and at the end of it they coalesce into a single mind composing a trinity(“Antonius-Burrus-Caseous grouptriad”) in forms of triangle(“climactogram”) by the third person who combines the two opposites following the process of thesis-antithesis-synthesis.

■ Key words : subject, multiple personality, poststructuralism, Lacan, Caesar, Brutus, Cassius, Antonius (주체, 다원적 인격체, 후기구조주의, 라캉, 시저, 브루투스, 카시우스, 안토니우스)